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형태가 조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세대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혜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년학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노인복지의 증진에 있다. 조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역시 세대간 관계가 노인의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가설적 영향력에 기초한다. 조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관계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고(조병은과 신화영, 1992; 최정혜와 김태현, 1992; Goodman, 2003), 세대간의 심리적 유대는 조부모의 부정적 정서와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Goodman and Silverstein, 2002; Long and Martin, 2000). 성인자녀와 조부모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더욱 강조된다.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자녀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자원과 심리적 지지를 의미한다. 부모의 정서적 안녕은 자녀와의 심리적 유대에 의존하며 부모의 경제적 상태는 자녀의 경제적 상태와 궤를 같이한다.

조부모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조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세대간 관계는 노년학 연구의 주요 주제로 무게 있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세대간 관계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세대간 관계에 대한 시각의 편향성이다. 국내연구는 직·간접적 접촉, 물리적 동거, 도구적 자원교환 등 세대간 관계의 객관적 형태에 집중 되어 왔다. 조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심리적 유대감이나 관계의 질과 같은 주관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만 강조되었을 뿐 간헐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최정혜와 김태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992; Goodman, 2003).

또한, 조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세대간 관계의 호혜성을 간과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기존 연구는 세대간 관계를 자녀의 시각에서 조명하여, 부양부담과 효의식을 중심으로 조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김태현과 최정혜, 1990; 조병은과 신화용, 1992). 그러나,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양은 호혜적 성격이 강해, 성인자녀에게서 조부모로 향한 상향적 부양만을 고려한 시각은 조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고찰에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기 어렵다.

한국의 조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부양은 손자·녀 돌보기이다(조병은과 신화용, 1992).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해체의 증가로 현대가족의 모성기능은 약화되었고 조부모의 아동양육 역할은 더욱 강조되었다. 손자·녀 양육은 조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부양의 한 형태로 조부모와 자녀와의 세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대가족의 '가족 지킴이'로서 조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손자·녀 양육의 하향적 부양이 세대 간 관계의 연구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언급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조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대표적 부양형태인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세대간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어왔던 세대간 관계의 주관적 측면을 고찰하며, 조부모에 의한 하향적 부양중심의 시각을 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사회교환이론

경제학의 공리주의와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회교환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를 발견하고자 한다(조병은과 신화용, 1992). 인간관계를 비롯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9가지 기본가정을 두고 있으며, 인간의 합리성, 상호성의 규범, 정의의 원리는 가족관계 이해에 유용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조정문과 장상희, 2001).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은 사회교환이론의 긍정적 인간관을 반영한다. 사

회교환이론은, 인간은 비용은 최소화하고 보상은 최대화 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합리적 사고력을 갖추었다고 전제한다. 인간관계가 지속되면서 개인은 대상자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호성의 규범이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이후의 교환관계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교환관계 속에서 상호성의 균형이 깨어질 때 개인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된다. 교환관계가 안정되면 정의의 원리에 따라 공정한 교환의 규범을 따르게 된다. 교환관계에서 보상과 비용이 균형적이라고 판단되면 교환관계에 만족하나 비용에 비해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교환관계에 불만을 갖게 된다. 반면, 비용에 비해 보상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심리적 부담이나 죄책감으로 인해 교환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Homans, 1974). 사회교환이론은 보상과 비용이 사회적 규범과 가치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보상과 비용은 객관적이거나 결정적이기 보다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주관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본다.

사회교환이론은 조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분석을 위한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조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손자·녀 돌보기, 가사보조, 심리적지지, 경제적 보조는 조부모의 비용으로 인식된다. 반면, 성인자녀가 조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지, 도구적 지원은 성인자녀와의 교환관계로부터 조부모가 얻는 보상으로 이해된다. 자녀에게 제공한 비용에 비추어 자녀로부터의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부모는 자녀와의 교환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자녀에게 제공한 물질적 도구적 및 심리적 자원에 비해 자녀로부터 비용에 상응하는 적절한 정도의 경제적 심리적 도구적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자녀로부터 비용 이상의 과도한 보상을 받았다고 판단한 조부모는 자녀와의 교환적 관계를 중단하고자 하나 가족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갈등적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자녀에게 노후의 경제적 삶을 의존하는 한국가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행위는 자녀의 부모부양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지불하는 보상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의 호혜적 균형을 이루게 한다. 반면 자녀가 지불하는 부양비용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조부모의 경우, 자녀로부터의 과대보상으로 인해 공평한 거래의 교환원칙을 벗어났음을 인식하게 된다. 자녀와의 교환관계에서 생긴 호혜성의 불균형은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조적으로,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행위는 자녀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개입하게 되는 원인이 성인자녀의 이혼이나 경제적 파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부모가 성인자녀로부터 대리모 역할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조부모의 12%만이 손자·녀의 부모와 정기적인 접촉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는 손자·녀 전담양육행위가 보상 없이 조부모에게 과대비

용만을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조부모는 불공정한 교환으로 인해 성인자녀와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2. 선행연구

1)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세대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손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조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성인자녀의 부모기능 상실을 의미한다. 부모기능 상실은 일반적으로 성인자녀의 가구 내 부재와 맥을 같이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사망, 가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서 성인자녀 부재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조부모를 손자·녀 양육의 일선에 서게 한 성인자녀의 이혼, 사망, 가출, 경제적 파산 등은 조부모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을 야기하며(Jendrek, 1994; Minkler, Driver, Roe, and Bedeian, 1993), 조부모의 심리·정서적 불안정은 조부모와 가족관계의 약화와 가족 내 응집력 와해를 초래한다(Goodman, 2003). 손자·녀를 대리양육 하는 전담양육 조부모의 51%가 성인자녀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다는 연구결과는 손자·녀 전담양육이 세대간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말해준다(Goodman, 2003).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원조하는 주된 원인은 성인자녀의 경제적 활동지원이다(Goodman and Silverstein, 2002). 성인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위한 안전 망으로 기능하여, 성인자녀의 아동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함은 물론 여성자녀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조부모로부터 손자·녀 양육원조의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성인자녀에게 조부모와의 협력적이고 밀착된 관계유지는 절대적이다. 성인자녀가 조부모로부터 느끼는 보상의 정도와 손자·녀 연령 사이의 부적관계는 조부모로부터 손자·녀 양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성인자녀일수록 부모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함을 보여준다(조병은과 신화용, 1992). 따라서, 손자·녀 양육을 원조하는 조부모와 성인자녀는 높은 심리적 친밀감을 보인다.

반면, 자녀양육을 둘러싼 조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심리적 갈등 역시 다세대 동거가족의 역동적 특성으로 주지되어 왔다(Goodman and Silverstein, 2002). 성인자녀는 자녀양육에 대해 원치 않는 조언, 간섭, 아동양육에 관한 세대간 시각 차로 인해 조부모와 심리적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때로 성인자녀의 부모역할이 조부모에 의해 침해되며 성인자녀는 자녀양육의 소외자로 남기도 한다.

2) 조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세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대간 관계에 관한 국내연구의 주제는 세대간 관계가 조부모의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과 세대간 관계를 결정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로 수렴된다. 선행연구에서 세대간 관계의 결정 변인으로 주목되었던 요인들이 검토되었다.

(1) 경제상태

조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증가시켜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Quinn, 1983). 경제적 상태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된 조부모 집단 중 경제적 수준이 상인 조부모가 성인자녀와 가장 높은 유대감을 보였으며 이어 중 그리고 하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최정혜, 1994). 위의 연구결과는, 조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정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단독세대 노인의 자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한경혜, 1996), 조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세대간 관계의 정적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조부모일수록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현상이 비단 도시노인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도농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떠난 일반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2) 성

여성성은 조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긍정적 관계와 상관관계를 갖는다(김태현과 최정혜, 1990).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한 최정혜(1994)의 연구에서, 성인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조부모와의 결속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자, 모녀, 부녀관계와 비교해 부자관계의 갈등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성과 긍정적 세대 관계간의 정적 연관이 검증되었다.

(3) 결혼상태

배우자의 유무 역시 조부모와 자녀와의 세대간 연구에서 꾸준히 탐색되어 온 설명변수이다. 배우자 유무가 세대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배우자가 없는 조부모의 경우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강하고, 성인자녀는 배우자가 없는 부모를 위해 부재된 배우자가 감당했던 역할의 일부를 대리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조부모와 성인자녀의 유대가 높게 나타났다(최정혜, 1994). 반면, 농촌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일수록 자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유배우자 노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세대관계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1996). 위 결과는, 배우자

가 없는 노인일수록 자녀에 대한 심리적, 도구적 의존도가 높으며 자녀 의존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세대간 관계에서의 호혜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교육수준

조부모의 교육수준이 조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농촌단독세대 노인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정도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1996). 그러나 언급된 연구 결과는 71%의 노인이 무학이며 무학인 노인을 포함해 92%의 노인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으로 나타난 교육수준의 극심한 정적왜곡분포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5) 자녀로부터의 지지

사회적 지지는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잠재적 자원의 사회적 공급을 의미하며 물질적, 도구적, 정서적, 정보적 형태를 띤다(George and Gwyther, 1986).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심리정서에 대한 완충역할로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 자녀로부터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일부분으로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공유한다. 자녀로부터의 지지는 자녀수,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의 종류, 자녀와의 접촉빈도, 거주근접성의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자녀의 수 특히 근거리거주 자녀수는 지지의 접근성을 의미하며, 가까이 사는 자녀가 많을수록 물리적 접촉이 증가하고 이는 긍정적 세대간 관계로 환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세대간 결속의 하위차원으로 접촉결속력을 대표한다. 접촉 결속력은 세대간 관계의 주관적 질을 의미하는 애정 결속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engtson and Roberts, 1991).

(6) 애착유형

애착유형은 아동의 애착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Ainsworth(1978)에 의해 소개된 이후 성인의 행동특성연구에 꾸준히 적용되어 왔다(이주일, 2003). 성인의 애착유형은 안정적 애착유형, 회피적 애착유형, 불안애착유형으로 분류된다(Shaver and Hazen, 1993). 안정적 애착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의존적 관계형성, 애정에 대한 자신감의 특성을 보이며 주변사람들과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형성에 문제가 없다. 회피적 애착유형을 보이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주변사람과 친밀감 형성을 두려워하고 의존적 관계형성을 회피한다. 불안애착유형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친밀감 형성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는 반면 타인의 반응에 대해 불안해하는 양가감정의 특성을 보인다. 사랑

중독증, 열정적 사랑의 갈구 또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애착유형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Shaver and Hazen, 1993).

성인여성은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높은 부양비용과 더 낮은 심리적 보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비용과 보상간의 비경제성으로 인해, 성인여성은 시어머니와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병은과 신화영, 1992). 성인여성과 양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이성은, 성인여성과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사회적 제도와 도덕에 근거한 규범적 관계인 반면, 친정어머니와의 관계는 양육자와 피양육자 간의 애정을 기초로 형성된 관계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성인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세대간 애착유형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언급된 사회교환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손자·녀 양육형태에 따라 조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관계의 질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2: 손자·녀 양육형태가 조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를 위해 한림대학교 고령화사회연구소의 '고령화와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종단적 연구'의 1차년 자료가 분석되었다. '고령화와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종단적 연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성인 2,519 명을 대상으로 가족구조, 건강 및 의료, 심리, 사회복지 및 사회생활의 5개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 선정은 구별 조사구의 층화표집, 선정된 조사구에 포함된 동별 통에 대한 집락표집, 선정된 통별 45세 이상 인구의 계통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면접전문요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대인면접기법이 사용되었다.

2. 분석대상자

6개월 이상 손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가의 질문에 양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081

명의 조부모 중 현재 한 명 이상의 18세 이하 손자·녀와 동일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513(47.46%)명의 조부모가 분석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71.8(sd=7.3)세로 나타났으며 45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부모가 12.30%(n=63),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조부모가 54.10%(n=277), 75세 이상 84세 이하의 조부모가 28.71%(n=147), 그리고 85세 이상 조부모가 4.88%(n=2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조부와 조모는 각각 132(25.83%)명과 379(74.17%)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72%(n=316)가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무배우자 상태이며 38.28%(n=196)만이 기혼 유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자녀수는 4.13(sd=1.69)명으로, 15.79%(n=81)가 2명 이하의 자녀를, 66.08%(n=339)가 3명에서 5명의 자녀를, 18.13%(n=93)가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교육연수는 3.96(sd=4.4)년으로 나타났으며, 무학에서 최고 18년으로 비교적 넓은 범주를 보였다. 65.30%(n=335)의 응답자가 도시지역 거주자, 34.70%(n=178)의 응답자가 농촌지역 거주자로 나타났다. 22.42%(n=115)의 응답자가 고용된 상태였으며, 58.67%(n=301)는 은퇴, 18.91%(n=97)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76.9%인 395명만이 가구 전체의 한달 평균 소득을 밝혔다. 응답자의 7.34%(n=29)는 50만원 미만, 40%(n=158)는 150만원 미만, 40.51%(n=160)는 300만원 미만, 그리고 12.15%(n=48)는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및 성인자녀와 한 가구에 거주하는 조부모는 80.12%(n=411)명에 달했으며, 동일 가구 내에 성인자녀 없이 손자·녀와 만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는 19.88%(n=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세대간 관계는 저자가 만든 세 개의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각각의 질문은 부부간 관계 측정을 위해 개발된 'Kansas Marital Satisfaction'의 세 항목과 유사하게 서술되었으며 'Kansas Marital Satisfaction' 질문에서의 '배우자'가 '아들 또는 딸'로 대체되었다. 세 질문은 첫째,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둘째, 아들 또는 딸의 자녀역할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매우 만족한다'에서 '매우 불만족 한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정도의 긍정적 관계를 의미한다.

기술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중형의 분포곡선을 보이며 왜도치 역시 -0.23으로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 또는 딸의

자녀역할에 대한 만족도 역시 중형에 가까운 분포곡선을 보였으나 왜도치는 -0.9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의 질은 부적으로 왜곡된 분포곡선을 보였으며 왜도치 역시 -1.22로 높게 나타나 비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정규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자승전이 했다. 자승전이 결과, 자녀와의 관계의 질의 왜도치는 -0.23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분포곡선 역시 정규분포곡선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분포도가 완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세 문항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를 통해 조사되었다. Chronbach's α 는 0.75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범 주	구성비%	구성원수(n)
연령	45-64	12.30	63
	65-74	54.10	277
	75-84	28.71	147
	85 이상	4.88	25
성별	남성	25.83	132
	여성	74.17	379
결혼상태	유배우자	38.28	196
	무배우자	61.72	316
자녀수	2 이하	15.79	81
	3-5	66.08	339
	6 이상	18.13	93
고용상태	고용	22.42	115
	은퇴	58.67	301
	무직	18.91	97
월평균소득	50 미만	7.34	29
	50-149	40.00	158
	150-299	40.51	160
	300 이상	12.15	48
거주지	도시	65.30	335
	농촌	34.70	178
양육형태	전담양육	19.88	102
	원조양육	80.12	411

그러나, 세대간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세 질문이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 응답치의 단순한 합은 세대간 관계의 정도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세 항목의 주성분 값을 통해 세대간 관계의 표준화 값을 나타내고자 했다. 세 질문의 주성분분석 결과, 고유가가 1을 넘는 한 개의 주성분이 추출되었다(Eigen value=2.03). 추출된 주성분은 세 질문의 분산의 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손자·녀 양육형태이다. 손자·녀 양육형태는 원조양육과 전담양육으로 이원화되었다. 원조양육은 손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학습적, 경제적 양육의 책임이 조부모에게 전적으로 있지 않고 조부모가 성인자녀의 손자·녀 양육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거나 원조하는 양육형태로 정의되었다. 전담양육은 손자·녀의 신체적, 사회적, 학습적, 경제적 양육의 책임이 조부모에게 전적으로 주워지며 조부모가 일차적 양육자로 손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양육형태로 개념화되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형태는 가구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Peterson, Hunter, Ensminger, and Kellam, 1990). 동일 가구에서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는 전형적으로 손자·녀 양육을 공유하거나 원조하는 형태로 손자·녀 양육에 개입한다. 가구 내 성인자녀의 출현 없이 손자·녀와 동거하는 조부모는 대리모로서 손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전담양육 형태를 취하게 된다. 반면, 손자·녀 및 성인자녀와 동일가구에서 거주하는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거나 원조하는 원조양육의 형태로 개입한다(Pearson, Hunter, Cook, Ialongo, and Kellam, 1997). 이에 근거하여, 원조양육과 전담양육의 양육형태는 조부모의 가구구조를 지표로 측정되었다. 전담양육은 양/한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 만으로 구성된 가구, 원조양육은 양/한 조부모, 양/한 부모 그리고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조작되었다.

3) 통제변수

(1)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는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상태의 객관적 지표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한다. “현재의 경제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어렵다’에서 ‘매우 여유가 있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2) 결혼상태

결혼상태는 기혼 유배우자, 별거, 이혼, 사별 및 미혼으로 범주화되었다. 회귀분석을 위해 더미변수화 되었으며 유배우자와 무배우자로 이원화되었다.

(3)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학교 또는 서당을 다닌 총년수로 개념화되어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4) 자녀로부터의 지지

자녀로부터의 지지는 자녀와의 접촉빈도, 근거리거주 자녀수로 조작화 되었다.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한달 간 자녀와의 전화통화, 동행외출, 방문의 총 빈도수로 정의되었다. ‘전혀 없음’에서 ‘5회 이상’의 6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근거리거주 자녀수는 조사 대상자의 집으로부터 1시간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의 총수로 정의되었다.

(5) 애착유형

애착유형은 이주일(2003)에 의해 개발된 애착유형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애착유형질문은 세 가지의 애착유형을 설명한 문장 중 자신의 대인관계 특성과 가장 유사한 문장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애착유형을 파악한다.

4. 분석방법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기술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손자·녀 양육형태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세대간 관계의 질의 집단 차는 교차분석과 t-test를 통해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다. 손자·녀 양육형태가 세대간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통제변수를 달리한 4개의 회귀모델이 분석되었다. 통계처리를 위해 SAS version 10이 사용되었다.

IV. 분석결과

1. 손자·녀 양육형태에 따른 분석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와 양육을 원조하는 조부모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이 비교되었다. 손자·녀 전담양육 조부모의 평균연령은 71.46(sd=7.39)세로 원조양육 조부모의 평균연령 71.19(sd=7.37)세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전담양육 조부모의 32.35%(n=33)는 남성, 67.65%(n=69)는 여성으로, 남성이 24.21%(n=99) 여성이 75.79%(n=310)인 원조양육 조부모의 성비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82, p=0.09$). 손자·녀 전담양육 조부모의 53.92%(n=55)는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으며 46.08%(n=47)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자·녀 양육을 원조하는 조부모의 63.66%(n=261)는 배우자가 없었으며, 36.34%(n=149)만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관한 두 집단의 집단 차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27, p=0.07$). 손자·녀 전담양육 조부모는 평균 4.03(sd=1.74)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평균 4.15(sd=1.68)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양육원조 조부모의 자녀수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62, p=0.53$).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조부모의 15.69%가 2명 이하의 자녀를, 63.73%가 3명 이상에서 5명 이하의 자녀를, 그리고 20.59%가 6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집으로부터 한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수는 전담양육 조부모의 경우 1.28(sd=1.58)명, 원조양육 조부모의 경우 1.22(sd=1.42)명으로 나타났으며 근거리거주 자녀수의 집단 간 차이 역시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t=0.58, p=0.56$).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조부모는 평균 3.73(sd=4.39)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4.0(sd=4.0)년의 교육을 받은 원조양육 조부모와 교육년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58, p=0.56$). 손자·녀 전담양육 조부모의 27.45%(n=28)와 원조양육 조부모의 36.50%(n=15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전담양육 조부모의 72.55%(n=74)와 원조양육 조부모의 63.50%(n=261)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지역 거주 조부모의 22.09%가 손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77.91%는 손자·녀 양육을 원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거주 조부모의 경우, 15.73%가 손자·녀 전담양육 조부모이고 84.27%가 원조양육 조부모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형태별 구성비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chi^2=2.95, p=0.08$). 주거형태는 전담양육 조부모의 55.88%(n=57)가 자가, 17.65%(n=18)가 전세, 20.59%(n=21)가

월세, 5.88%(n=6)가 기타로 나타나 자가 82.48%(n=339), 전세 11.44%(n=47), 월세 4.62%(n=19), 기타 1.46%(n=6)로 나타난 양육원조 조부모의 주거형태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chi^2=43.52$, $p<0.0001$).

<표 2> 손자·녀 양육형태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범주	전담양육		원조양육		χ^2
		%	n	%	n	
성	남성	32.35	33	24.21	99	2.82
	여성	67.65	69	75.79	310	
결혼상태	유배우자	46.08	47	36.34	149	3.27
	무배우자	53.92	55	63.66	261	
자녀수	2 이하	15.69	16	15.82	65	0.53
	3-5	63.73	65	66.67	274	
	6 이상	20.59	21	17.52	72	
고용상태	고용	26.47	27	21.41	88	1.20
	은퇴	55.88	57	59.37	244	
	무직	17.65	18	19.22	79	
월평균소득	50 미만	23.47	23	2.02	6	99.46***
	50-149	62.24	61	32.66	97	
	150-299	13.27	13	49.49	147	
	300 이상	1.02	1	15.82	47	
주거형태	자가	55.88	57	82.48	339	43.52***
	전세	17.65	18	11.44	47	
	월세	20.59	21	4.62	19	
	기타	5.88	6	1.47	6	
거주지	도시	75.22	74	63.50	261	2.9
	농촌	27.45	28	36.50	150	

*** $p<0.0001$

전담양육 조부모의 26.47%(n=27)가 경제활동 인구였으며 73.53%(n=75)는 은퇴 또는 실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조양육 조부모의 경제활동 여부도 전담양육 조부모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1.41%(n=88), 비경제활동인구는 78.59%(n=323)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담양육 조부모의 23.47%(n=23)가 50만원 미만, 62.24%(n=61)가 5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 13.27%(n=13)가 1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그리고 1.02%(n=1)가 300만원 이상으로 응답했다. 원조양육 조부모는 2.02%(n=6)가 50만원 미만, 32.66%(n=97)가 5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 49.49%(n=147)가 1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그리고 15.82%(n=47)가 3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손자녀 양육형태가 조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손자녀 양육형태에 따른 조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차이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 부모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정도가 3.04(sd=1.05)인 것으로 나타나 3.07(sd=0.99) 정도의 만족도를 보인 원조양육 조부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32, p=0.75$). 아들 또는 딸에 대한 만족도에서, 손자·녀를 전담양육하는 조부모는 3.37(sd=0.97) 정도의 만족도를 보여 3.76(sd=0.79)의 만족도를 보인 원조양육 조부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3.77, p<0.001$). 아들 또는 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담양육 조부모의 경우 3.52(sd=0.87), 원조양육 조부모의 경우 3.88(sd=0.71)로 나타났으며 원조양육 조부모가 전담양육 조부모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3.89, p<0.001$).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 항목의 대푯값인 주성분 값은 전담양육 조부모가 -0.49, 원조양육 조부모가 0.12로 나타났으며, 전담양육 조부모가 원조양육 조부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세대 간 관계의 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3.49, p<0.001$).

<표 3> 손자·녀 양육형태에 따른 세대간 관계

변수	전담양육	원조양육	t
부모역할 만족	3.04	3.07	0.32
자녀역할 만족	3.37	3.76	3.77***
자녀와의 관계 만족	3.52	3.88	3.89***
주요성분 1	-0.49	0.12	3.49***

*** $p<0.0001$

2) 손자녀 양육형태가 조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손자·녀 양육형태가 조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4개의 모델이 회귀분석 되었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더미 처리된 손자·녀 양육형태만이 독립 변수로 종속변수인 자녀와의 관계에 회귀되었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주관적 경제상태, 성, 결혼상태, 교육년수 등 조부모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이 통제변수로 소개되었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조부모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조부모와 자녀와의 접촉 빈

도 그리고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자녀의 수 등 자녀로부터의 지지를 나타내는 변수가 추가로 통제되었다. 네 번째 모델에서는 조부모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자녀로부터의 지지를 나타내는 변수 외에 조부모의 애착유형을 나타내는 변수가 추가로 통제되었다. 각 회귀모델은 다음과 같다.

- 모델 1 $Re = \alpha + Custo$
- 모델 2 $Re = \alpha + Eco + Woman + Nospo + Edu + Custo$
- 모델 3 $Re = \alpha + Eco + Woman + Nospo + Edu + Ncont + Nearch + Custo$
- 모델 4 $Re = \alpha + Eco + Woman + Nospo + Edu + Ncont + Nearch + Anti + Avoid + Custo$

<i>Custo</i>	손자·녀 전담양육	<i>Eco</i>	주관적 경제상태	<i>Woman</i>	여성
<i>Nospo</i>	무배우자	<i>Edu</i>	교육년수	<i>Ncont</i>	접촉빈도수
<i>Nearch</i>	근거리거주 자녀수	<i>Anti</i>	불안애착유형	<i>Avoid</i>	회피적 애착유형

모델 1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전담양육은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분산의 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03$).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형태가 전담양육일 경우, 원조양육과 비교해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약 0.61 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0.61, t=-3.85, p<0.0001$).

모델 2에서 손자·녀 양육형태는 통제변수인 조부모의 경제상태, 성, 결혼상태, 교육정도와 함께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분산의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11$). 조부모의 여성성($\beta=-0.16, t=-0.90, p=0.36$)과 무배우자 상태($\beta=-0.05, t=-0.35, p=0.72$)는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조부모의 주관적 경제상태($\beta=0.40, t=5.40, p<0.0001$)와 교육년수($\beta=0.02, t=1.41, p=0.16$)는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부모의 주관적 경제상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부모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매우 부족하다’에서 ‘부족하다’ 또는 ‘만족한다’에서 ‘매우 만족한다’로 1 단위 증가하면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0.40 증가한다. 앞서 설명한 조부모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이 통제된 후에도 조부모의 손자·녀 전담양육이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0.43, t=-2.74, p<0.01$).

모델 3에는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자녀의 수와 자녀와의 접촉빈도 등 자녀로부터의 지지를 나타내는 두 변수가 통제변수로 추가되었다.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자녀로부터의 지지를 측

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온 지표이다. 그러나 세대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의 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조부모와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모델 3에 소개되기에 앞서, 조부모와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수 두 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이 조사되었다. 근거리 거주 자녀수를 자녀와의 접촉빈도에 회귀한 결과 근거리 거주 자녀수는 자녀와의 접촉빈도 분산의 0.6%만을 설명했으며($R^2=0.006$) 회귀모델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3.48, P=0.06$). 뿐만 아니라, 근거리 거주 자녀수의 Tolerance값이 0.97로, 조부모와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근거리 거주 자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표 4> 세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분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β	t	β	t	β	t	β	t
손자녀 양육	전담양육	-0.61	-3.85***	-0.43	-2.74*	-0.47	-2.94*	-0.45	-2.86*
인적특성	경제상태			0.40	5.40***	0.39	5.26***	0.40	5.35***
	여성			-0.16	-0.90	-0.14	-0.79	-0.11	-0.60
	무배우자			-0.05	-0.35	-0.04	-0.30	-0.03	-0.23
	교육년수			0.02	0.16	0.02	1.36	0.02	1.44
자녀로부터 의지지	자녀수					0.09	2.17*	0.09	2.10*
	접촉빈도					0.05	1.12	0.05	1.11
애착유형	불안애착							-0.55	-2.23*
	회피적 애착							-0.21	-1.49

*** $p<0.0001$, * $p<0.01$

모델 3은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분산의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13$). 조부모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중 조부모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39, t=5.26, p<0.0001$).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의 수($\beta=0.09, t=2.17, p<0.05$)와 조부모와 자녀와의 접촉 수($\beta=0.05, t=1.12, p=0.26$) 모두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거리 거주 자녀의 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부모의 거주지로부터 1시간 이내 거리에 살고 있는 자녀가 한 사람 증가하면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0.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자녀로부터의 지지에 관한 변수들이 통제된 후에도 조부모의 손자·녀 전담양육이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47, t=-2.94, p<0.01$).

모델 4에는 앞서 통제된 변수 외에 조부모의 애착유형이 추가로 통제되었다. 안정적 애착유형이 준거집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회피적 애착유형과 불안애착유형이 회귀분석에 포함되었다. 모델 4는 세대간 관계 분산의 14%를 설명했다($R^2=0.14$). 애착유형이 통제된 후에도 주관적 경제상태가 세대간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40, t=5.35, p<0.0001$). 근거리 거주 자녀의 수가 세대간 관계에 갖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조부모의 애착유형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유지되었다($\beta=0.09, t=2.10, p<0.05$). 회피적 애착유형과 불안애착유형 모두 세대 간 관계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안애착유형 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부모의 애착유형이 안정적 애착유형에서 불안애착유형으로 변화되는 경우,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질은 0.5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5, t=-2.23, p<0.05$). 조부모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자녀로부터의 지지 및 애착유형이 통제된 후에도 손자·녀 전담양육이 세대간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0.45, t=-2.86,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조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대표적 부양형태인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세대간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국내 선행연구에서 간헐적으로 다루어온 세대간 관계의 주관적 측면을 손자·녀 양육의 하향적 부양을 중심으로 조부모의 시각에서 고찰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손자·녀 양육형태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녀의 세대간 관계의 질이 어떤 차이를 보이며 손자·녀 양육형태가 세대간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고찰되었다.

연구 결과, 손자·녀를 전담양육하는 조부모는 손자·녀를 원조양육하는 조부모에 비해 자녀와 관계의 질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손자·녀 전담양육 조부모는 원조양육 조부모 보다 아들 또는 딸에 대한 높은 만족도, 아들 또는 딸과의 관계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부모의 주관적 경제상태와 근거리거주 자녀의 수는 세대간 관계의 질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조부모의 불안애착유형은 세대간 관계에 부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조부모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자녀로부터의 지지, 애착유형이 통제된 후에도 손자·녀 전담양육은 세대간 관계의 질에 부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위의 결과는, 사회교환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조부모는 과대비용에 따른 교환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성인자녀와 갈등적 관계를 갖게 됨을 시사한다. 자녀와의 관계가 조부모의 노후복지를 지배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손자·녀를 전담하는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의 부담과 자녀와의 갈등적 관계로 인한 이중위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전담양육이 손자·녀의 성장기까지 지속되며 자녀와의 갈등적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전담양육 조부모의 위기상황은 장기화된다. 손자·녀 전담양육 조부모가 유기, 이혼, 경제적 파탄에 처한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므로 조부모의 손자·녀 전담양육이라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적 보상은 아동양육비 보조, 생계비 보조, 주거지원 및 가정 봉사원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태현 · 최정혜 (1990).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부모-성인자녀관계 연구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 논문집*, 5, 161-175.
- 이주일 (2003). 「한국 노인의 삶에 관한 연구 1차년 중간보고서」 고령화 사회연구소, 한림대학교.
- 조병은 · 신화용 (1992).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회지*, 12(2), 83-98.
- 조정문 · 장상희 (2001). *가족사회학*. 서울 : 아카넷 .
- 최정혜 · 김태현 (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 212-232
- 최정혜 (1994).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 25-36.
- 한경혜 (1996). 농촌단독가구 노인의 자녀관계. *한국노년학*, 16, 21-38.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s,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engtson, V. L., & Roberts, R. E. L.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856-870.
- George, L. K., & Gwyther, L. P. (1986). Caregiver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3), 253-259.
- Goodman, C. C. (2003). Intergenerational triad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Journal of Gerontology*, 58B(5), S281-S289.
- Goodman, C. C., & Silverstein, M. (2002).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The Gerontologist*, 42, 676-689.
- Homans, G. C. (1974).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Jendrek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The Gerontologist*, 34(2), 206-216.
- Long, M. V., & Martin, P. (2000). Personality, relationship closeness, and loneliness of oldest old adult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y*, 55B(5), P311-P319.
- Minkler, M., Driver, D., Roe, K. M., & Bedeian, K. (1993). Community interventions to support

- grandparent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3(6), 807-811.
- Pearson, J. L., Hunter, A. G., Ensminger, M. E., & Kellam, S. (1990). Black grandmothers in multigenerational households: Diversity in family structure and parenting involvement in the Woodlawn Community. *Child Development*, 61, 434-442.
- Pearson, J. L., Hunter, A. G., Cook, J. M., Ialongo, N. S., & Kellam, S. G. (1997). Grandmo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giving in an urban community. *The Gerontologist*, 37, 650-657.
- Quinn, W. H. (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2), 57-73.
- Shaver, P. R., & Hazen, C. (1993). Adult romantic attachment. In D. Perlman & W. Jones(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Jessica Kingsley